

농촌유학생 추가 모집

도교육청, 20일까지... 정읍 이평초 등 15개 학교 1차 모집 결과 최종 45명 이내 13개 학교에 배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학년 농촌유학생 추가 모집에 나섰다. 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서울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로, 서울 이외 지역 학생은 도교육청 교육혁신과로 신청하면 된다.

추가모집하는 학교는 정읍 이평초, 완주 운주초, 무주 적상초·무풍초, 장수 산서초, 임실 대리초·청웅초, 순창

시산초·팔덕초·쌍치초·동산초·적성초, 고창 동호초·해리중, 부안 영전초 등 모두 15개교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차 모집 결과, 65명이 신청해 최종 45명을 이내 13개 학교에 배정됐다.

가족체류형 19가구 34명, 유학센터형 11명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희망유형 등이 맞

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전북농촌유학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유학생 27명 가운데 96%인 26명이 연장을 희망했다.

한편 전북농촌유학은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으로 운영된다. 가족체류형은 가족 또는 일부가 이주해 마을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고 홈스테이형은 농가에서 아이를 맡아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한다.

또 유학센터형은 학생 여러 명이 유학센터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방식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공립 유·초·중·고 및 교육기관 현업업무종사자(급식, 시설, 청소, 경비 등)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기관 산업재해 예방·종사자 재해 보호 역량 제고

전북도교육청,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내달 3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월 3일까지 공립 유·초·중·고 및 교육기관 현업업무종사자(급식, 시설, 청소, 경비 등)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0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스스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 내 위험요인을 노동자가 직접 찾아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교육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위험성평가 제도 이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심폐소생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등이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사교사회 중심 교육으로 현업업무종사자가 스스로 위험을 찾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교원양성 새 길 탐색

전국교원양성대학교 교수총회 18일 개최 학·석사 연계 교원양성 방안 중심 논의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교총협)는 18일 오후 3시 교원양성체제 발전을 위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교수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수총회는 대한민국 교원양성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수총회는 김창원 총장(경인교육대학교)의 진행으로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경과 보고(박관우 총장, 대구교육대학교), 교총협 회장과 기조 발제(이희규 총장, 청주교육대학교),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

18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이번 교수총회는 교원양성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전국 12개 국립 초등교원 양성대학교 교수 전체가 모여 미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석사 연계(대학원 수준) 교원양성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교총협은 "최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이 정책은 교원 정원 감축과 관련이 없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자체적인 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마련을 위해 수차례 정책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교육 정책 심포지움(2회)과 자체 심포지움(2회)을 개최했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

"한 학년 한 책 함께 읽어요"

전주교육문화회관, 3월부터 12월까지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3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한 학년 한 책 함께 읽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 학년 한 책 함께 읽기'는 교육과정 내 독서활동으로, 국어 또는 통합교과 내에서 한 학년이 같은 책 한 권을 온전히 읽고 생각을 나누 표현하는 독서 통합 교육이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 학년별 32종의 도서를 희망하는 학교로 한 학기 동안 단체 대출해 함께 읽기, 해당 도서의 작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강연, 독해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활동 등 3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말뚝툰이란 활동도서의 읽기 활동 중 접하는 낱말의 발췌를 사전을 통해 살펴보고 책 한 권을 깊이 있게 읽어 어휘력과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독후활동 등을 뜻한다.

지난해 참여한 전주호성중학교 교사는 "한 학년이 함께 읽고, 생각을 공

유하고 작가를 만나며 학생들이 책 읽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면서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또 전주덕진중학교는 학생은 "다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책을 읽으므로 공부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현규 관장은 "우리 도서관이 보유한 책과 독서교육 콘텐츠는 그동안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활용돼왔다"면서 "이제 이 자원들이 도서관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고, 도서관과 학교를 잇는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HELP Co-커리큘럼 개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교과와 비교과 간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통합적 운영 형태의 HELP Co-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16일 밝혔다.

HELP Co-커리큘럼은 교과와 비교과가 별개로 운영되지 않고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 전공과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HELP Co-커리큘럼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습모토플기 공모전 △명강의 에세이 공모전 △Te 캠퍼스디자인 △청출어람 튜터링이다.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HELP Co-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프로그램과 전공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계해 학생, 지도교수, 센터가 함께 학습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권산=김관문 기자

교육·연구 등 성과 '이목집중'

국립군산대 생명과학과

국립군산대학교 생명과학과가 교육, 연구 등 다방면의 성과로 이목을 끌고 있다.

학과 소속 최동수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군산대학교 농생명융합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스마트농생명인력양성사업을 최근까지 수행하였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역신도대학육성사업 농생명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효중 교수 연구팀에서는 2021년 환

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주관하는 2021년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생명과학과는 인재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학과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성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22년 김효중 교수와 김지윤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Ultraconserved elements)를 이용한 고치발과 분자계통 연구와 우수신진 연구사업(습지식물 군집계통 모델링과 경관수준의 서식처 조사기술을 이용한 습지생태계 보전전략의 미래적응력 증진)에 각각 선정됐다.


2021년에는 최영준 교수가 농촌진흥청의 명상정보 활용 주요 병해충 진

단기술개발 사업, 농림식품과학부의 '제조제 대체 미생물 농약, 생화학농약 제품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생물 중앙은행 육성' 사업에 선정되었고, 이효중 교수는 같은 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우수신진연구와 최초혁신 실험실(비 근권 내 미생환경에서의 메탄산화) 특성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연구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학년도 72.7%가 취업 및 진학에 성공하는 등 취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취업처로는 국립생태원, 농업직 공무원, 농촌지도사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바이오엑스, 바이오닉스 등 생명과학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 다양하게 취업하고 있다. /권산=김관문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손씻기



마스크착용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자료: 질병관리청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